

#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성금 모금 성료

-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1월 17일 현재 돼지고기 8천750여kg 전달

우리 협회(회장 최영열)와 축산신문사(회장 윤봉중)가 공동 주관한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이 양돈농가들과 축산 관련단체 및 업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총 1억4천4백55만원의 성금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모금된 성금으로 경기 군포의 양지의 집, 강원 철원 적십자 봉사단 등 1월 17일 현재 전국 110여곳의 불우시설에 돼지고기 8천750여kg(4천1백88만여원)을 전달하고 양돈인의 이웃사랑을 전했으며, 남은 물량을 오는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전국 각 시·군별로 돼지고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96페이지 참조)

## 축산환경대책위원회 구성

- 1월 19일 1차 회의 열고 본격 운영  
- 분뇨처리 및 양돈장 냄새규제 등 대책 수립

2003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농림부·환경부 합



동 가축분뇨관리·이용 대책의 후속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분뇨처리 및 양돈장 냄새 규제 등 양돈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열)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축산환경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축산환경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유재일 위원(유재일 축산시설환경컨설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축산환경대책위원회’로 확정하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월 10일 시행되는 악취방지법과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양돈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지원사업,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법에 김동수·김태욱·이명규·양창범 위원을, 악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김두환·장영기·유용희·유재일 위원을 소위원회로 별도 구성해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대책(안)을 마련토록 했다.

##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 최영열 회장, 부위원장 : 유재일 위원(유재일 축산시설환경컨설팅), 고문환 위원(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장), 김동수 위원(농협중앙회 컨설팅지원부 차장), 김두환 위원(진주산업대학교 교수), 김태욱 위원(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양창범 위원(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 이명규 위원(상지대학교 교수), 장영기 위원(수원대학교 교수), 정중국 위원(대한양돈협회 감

## 제1종정소 경매일 변경 안내

우리 협회 제1종중도능력검정소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혼잡과 양돈농가의 주간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해 중도 구입고객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2005년 1월 경매시부터 기존 매월 20일에 실시되던 경매날짜를 매월 셋째주 목요일로 변경해 실시합니다.

사), 최홍림 위원(서울대학교 교수)(가나다순)

**돼지생산이력제 도입 크게 “공감”**

- ‘돼지생산이력제 도입방안’ 심포지엄 개최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돼지생산이력제’의 필요성에 대해 양돈업 관계자들은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12월 23일(목)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우리 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돼지생산이력제 도입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석희진 과장,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 김건태 명예회장, 김동환 부회장,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소시모 강광파 상임이사, 축산물등급판정소 김경남 소장 및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생산이력제 도입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다.

최영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한국형 이력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란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행사 주관을 맡은 축산신문사 윤봉중 회장은 “세계 축산물 무역 개방

은 위생과 안전도 함께 개방된 것이다. 오늘 심포지엄은 소비자를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밥상’ - “행복 안겨주는 복돼지”**

- 최영열 회장, ‘행복한 밥상’ 인터뷰부서 돼지고기 이미지 제고



▲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이 지난 17일 KBS 2TV ‘행복한 밥상’ 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행복 안겨주는 복돼지, 돼지고기 많이 드세요!”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KBS 2TV ‘행복한 밥상’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갖고 소비자들의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돼지에 대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김현욱·변우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2TV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전 8시에 60분 동안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시청자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최영열 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행복을 안겨다 주는 ‘복돼지’를 강조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최영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1월 29일(토) 오전 8시~9시 KBS 2TV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다.

**‘까리따스 복지관’에 따스한 사랑 “훈훈”**



▲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과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중앙 좌우측)이 지난 1월 6일 까리따스 복지관을 방문해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직접 배식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6일(목) 서울 방배동 소재 <까리따스 방배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 배식행사에 참여해 양돈인의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날 배식에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안승춘)가 함께 동참해 우리 협회에서 보내온 돼지고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어 배식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은 돼지고기를 이용해 만든 사랑의 돼지고기 요리를 이날 급식을 받은 노숙자 등 250여명에게 손수 나눠주는 등 양돈인의 사랑을 전달하며, “돼

지고기를 먹고 힘내 다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며, “이날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사랑의 돼지고기를 전달해 양돈농가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까리따스 수녀원 콘스탄티노 수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돼지고기를 보내주고 함께 배식에 참여해 주는 등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양돈협회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사랑의 돼지고기도 함께 나눠요”

- 양돈협, KBS 생방송 '농산물바자회' 동참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돕기 행사가 한창이다. KBS는 'KBS와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사랑의 밥상 나누기'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BS 생방송 '농산물바자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홍보 및 양돈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8일(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협회는 서울역

앞에서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한 요리 무료 시식회를 열고, 양돈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돈돈이' 캐릭터 홍보에도 나섰다. 또 KBS에 1천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기증하고, 돼지고기를 약 50% 할인판매를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KBS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사료 부원료사일로 · 전용창고 건설 요청

- 정부, 평택항 양곡전용부두 개발 추진 중

정부에서 곡물수입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평택항에 양곡전용부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축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평택항에 양곡부두 건설시 사료 부원료 사일로나 전용창고도 함께 건설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국내 배합사료 원료의 약 70%를 수입하고 있는 인천항의 경우 항만 인근주민과 환경단체의 계속되는 민원과 인천시 중구청, 검찰 등의 환경공해 단속강화로 사료부원료의 하역작업이 위기에 놓이고, 축산업계는 이로 인해 배합사료의 생산중단 및 적기 공급의 어려움 등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장들과 한국사료협회장은 지난 7월 19일 인천항에서 '사료부원료 비산먼지 발생

농도 측정시연회'에 참석하고, 이에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 사료부원료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이 관련

- 우리 협회 홈페이지 설문 결과 46.5% 응답

2005년 양돈농가의 우선적인 사업은 무엇보다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가 관건이다. 이는 지난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협회 및 관련 업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협회가 2005년을 맞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총 260명의 응답자 중 121명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가 우선적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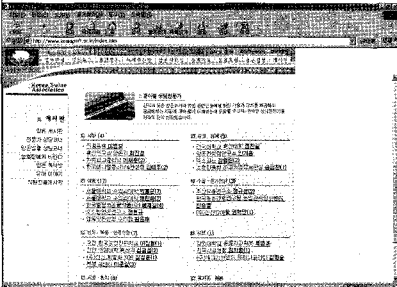
이어 '양돈장 악취 방지대책 마련'이 17.3%를 차지해 올해 2월 시행되는 악취방지법과 관련해 축산농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구제역, HC 재발방지 노력률이 11.9%,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이 10%, 친환경 축산업 지원대책 마련 7.3%, 양돈자조금 제도 정착 3.5%, 양돈농가 경영지도 강화가

2.3%로 나타났으며, 이어 양돈업 등록제 참여 계도가 1.2%로 뒤를 이었다.

**협회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코너' 인기 최고**

- 지난 6개월간 총 280여건 게재



우리 협회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koreapork.or.kr)에 2004년 6월부터 새롭게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가 전국의 많은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우리 협회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경영 및 정책 수급 및 돈가 전망 사료 질병 사양 시설 및 환기 분뇨 번식 및 육종, 인공수정 육가공 및 유통분야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33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거 투입한 결과 양돈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의문점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전문가 상담코너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 건수는 280여건으로 월 평균 40건, 1일 2건 이상씩 꾸준히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더욱 상담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MWS! 대책은 없는가?"**



우리 협회는 PMW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양돈농가들에게 전달하고자 PMWS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PMWS 예방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하였다.

**'농장 방문자 기록대장' 배포**

우리 협회는 농장에서 농장 방문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장 방문자 기록대장' 1만1천부를 제작해 농가로 배포(1월 4일 발송)했다.

이는 우리 협회에서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해, 농장 출입차량 등 외부에서 농장을 방문할 경우 철저한 소독으로 질병 등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제작한 것이다.

**'04년도 검정사업 계획대 실적 102% 달성**

2004년도 우리 협회 종돈능력 검정사업이 계획대 실적 100% 이상을 달성했다.

제1검정소(소장 강왕근)와 제2검정소(소장 홍성광)의 '04년도 검정소 검정입식 계획대 실적은 지난해 4/4분기까지 총 4천588두로 총 4

천512두 계획의 102%를 달성했다.

한편 '04년 10월~12월 동안은 입식두수가 1천148두, 종료두수가 1천201두였으며, 이중 985두가 합격해 총 957두가 낙찰, 평균 낙찰 가격은 98만6천175원을 기록했다.

**제1검정소, 올유년 첫 경매 순조로운 출발**

1월 13일(목) 우리 협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45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9만3천307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3두와 최우수돈 9두를 포함해 총 129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총 127두가 낙찰됐다. 이중 수컷 86두 평균 낙찰가는 96만9천767원으로 나타났다. 암컷 41두 평균 낙찰가는 73만2천927원을 기록했다.

**제2검정소, 검정돈 평균 낙찰가 96만5천원**

1월 11일(화) 우리 협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7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6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낙찰가는 5백만 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3두, 최우수돈 7두를 비롯해 총 138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38두가 모두 낙찰됐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10만7천745원(102두)이었으며, 암컷 평균 낙찰가는 56만 556원(36두)으로 나타났다.

## 제1검정소 이전 설계 중

- 공인 제1중등능력검정소 이전 추진 협의회 개최

우리 협회 공인 제1중등능력검정소가 이전될 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김건태 명예회장,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전홍우 충북도협의회장, 정홍연 전북도 축산행정과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금) 오후 2시 대한양돈협회 공인 제1중등능력검정소 이전 추진 협의회를 열고, 이전할 청정부지 선정, 설계 등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동안 경기 지역의 법정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고 질병 발생시 정상 검정 및 보상 문제 등이 야기돼 관련부처 및 양돈농가에서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1검정소의 경우 현재 시설이 노후돼 있으며, 검정돈 청정 유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검정돈의 사육환경을 개선해 국내 우수 종돈을 선별하는 것이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조직개편 및 경력직원 채용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0일부로 지도·기획부에 안혜성씨를 경력사원으로 안혜성 대리로 채용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새해를 맞아 승진 및 부서이동 인사를 실시하고 대농가

서비스 강화 및 대내외 경쟁력 확보,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의 업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인사이동 내역

- ▲이종길 홍보부 부장 → 총무부 부장
- ▲조진현 지도기획부 대리 → 홍보부 과장
- ▲이병석 홍보부 대리 → 홍보부 과장
- ▲김동완 지도기획부 대리 → 총무부 과장
- ▲정재은 홍보부 주임 → 총무부 대리
- ▲이정만 지도기획부 주임 → 지도기획부 대리
- ▲오유환 홍보부 주임 → 지도기획부 주임
- ▲이소영 지도기획부 주임 → 홍보부 주임
- ▲김동래 1검정소 기사 → 1검정소 주임
- ▲홍성문 2검정소 주임 → 2검정소 대리
- ▲강석덕 2검정소 주임 → 2검정소 대리
- ▲강선미 2검정소 서기 → 2검정소 주임보

##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 신임 강원도협의회장에 '고영민' 흥천지부장 선출



고영민 흥천지부장

강원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양돈조합 회의실에서 박정유 전 실에서 박정유 전 강원도협의회장, 고영민 흥천지부장, 성시명 철원지부장, 이병만 원주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임 강원도협의회장에 '고영민(41)' 현 흥천지부장을 선출했다.

고영민 도협의회장은 2000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 흥천군 흥천축협 대의원·우리 협회 흥천군 지회 총무·흥천 남면 농협 이사·우리 협회 흥천군지부장을 역임했다.

## 충남도협, 성공적 축산박람회 위해 적극 협력키로

- 1월 17일 도협의회 열고 세부방안 협의



충남도협의회(회장 남성현)는 지난 1월 17일 남성현 도협의회장 및 충남도내 각 지부장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남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30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적극 협력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충남도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도협의회에서 별도 국밥집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도협의회에는 우리 협회 최영열 회장, 최성현 차장(지도·기획부)이 참석하여 협회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 전북도협의회, 자조금 홍보결의

전북도협의회(회장 송정기)는 지난 15일(화) 우리 협회 김운중 이사, 전북지역 각 지부(회)장, 김봉식 익산 자조금 대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1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 외 이사

등은 모든 양돈농가에서 양돈자조금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조금에 대한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전남도협, 사랑의 돼지고기 전달



전남도협의회(회장 최희태)는 지난해 12월 28일(화) '사랑의 쌀 및 돼지고기 전달식'에 이웃사랑 돼지고기를 보내 이웃돕기에 앞장섰다.

이날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과 최희태 회장은 돼지고기 전달식을 갖고 우리 이웃에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에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 진주지부, '이동문' 신임지부장 선출



진주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수) 지부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이동문 진주지부장 관용 지부장의 후임으로 동지농장 이동문 대표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동문(37) 신임지부장은 '99년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를 전공, 남강A.센타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남 산청군 소재 동지농장의 대표이다.

### 공주지부, 공주시에 성금 1천1백만원 전달



▲ 좌로부터 김광의 양돈협회 공주지부장, 최영열 양돈협회장, 오영희 공주시장, 김동환 양돈협회 부회장

전국 양돈인들의 훈훈한 정 속에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7일에는 공주시에 성금 1천1백만원이 전달됐다.

전달된 성금은 모두 공주에서 돼지고기 수출부위 구입비로 이용돼 공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계획이다. 성금을 전달받은 오영희 공주시장은 "양돈인들의 따뜻한 온정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 협회 공주지부 전 회원은 돼지 한 마리씩을 기증해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을 마련했다.

### 영천지부, '나자렛 집' 등 돼지고기 전달



영천지부(지부장 김성곤)는 지난 6일 영천시 소재 '나자렛 집' 등을

방문하고 양돈인의 훈훈한 정을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이날 김성곤 도협의회장과 손갑석 부지부장, 서정구 부지부장, 조동형 총무는 '나자렛 집', '마야정신요양원', '희망원', '팔레스', '아가페선교원' 등에 돼지고기를 전달했으며, 나자렛 집 아녜스 수녀는 양돈인의 따뜻한 사랑에 고마움을 표했다.

### 밀양지부, 돼지고기 전달... 따뜻한 '정' 나눠



밀양지부(지부장 양대식)는 지난해 말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밀양시 13개동 경로당에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밀양지부는 상남면 소재 예림경로당과 하남읍 초동면·무안면·청도면·부북면 등에 소재한 경로당, 밀양시 삼문동 노인정 등에 사랑의 돼지고기를 전달하면서 양돈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 철원지부, 따뜻한 이웃사랑에 앞장

철원지부(지부장 성시명)는 지난해 12월 23일 철원 양돈인의 따뜻한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철원지부는 양돈인이 모금한 성금을 통해 철원군청 사회복지과와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철



원경찰서 등에 우리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 광주·장성지부, 안전돈육 생산 전략 모색

광주·장성지부(지부장 임승헌)는 지난 9일(목)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부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부장 및 20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한국양돈컨설팅 연구소 안기홍 실장의 '양돈 연간 성적 및 경영 분석'이라는 주제하 세미나를 경청했다. 특히 회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고품질 안전돈육 생산을 위한 2005년 경영 전략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 양산지부, 이웃돕기 돼지고기 전달



양산지부(지부장 정정일)는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

달했다.

이날 양산지부 정정일 지부장과 강영호 전 지부장, 양산축협 서춘개 조합장, 구춘홍 부지부장은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원은 무궁애학원 및 고아원 등을 방문해 사랑의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정정일 지부장은 이번 이웃돕기를 통해 "앞으로 더욱 불우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해지부, '창립 30주년 양돈인의 밤' 개최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지난해 12월 23일(목) '창립 30주년 양돈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김해지부는 지부장 및 협회 회원, 전임 지부장, 경남도협의 회장 등 22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회원 노래자랑 등을 열어 김해지부 양돈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 김포지부, 을유년 새해맞이 양돈인의 밤 개최

김포지부(지부장 민경국)는 지난해 12월 28일(화)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소재 황제웨딩프러자 무궁화홀에서 '김포시 양돈인의 밤'과



'지부장 이·취임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양돈인의 밤'에는 최영열 회장, 김포시의회 의장, 이승준 양돈연구회 회장, 기승중 축협조합장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해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양돈농가와 협력업체, 관계 기관 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포지부 이응관(47) 부지부장이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됐으며, 최영열 회장은 민경국 전임 지부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 양주지부 송년·새해 맞이 행사 개최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지난해 17일(금) 귀포골에서 양주지역 양돈·축산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돈인의 밤'을 개최하고, 향후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양돈**